

# 음바페 실축 '佛꺼진' 8강



29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아레나 나치오날라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16강 프랑스 대 스위스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실축을 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23)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프랑스 승부차기 끝 스위스에 패배·크로아티아 연장서 스페인에 덜미 ... 러시아 월드컵 1·2위 팀 유로 16강서 탈락

### 메시 2골 1도움 원맨쇼, 아르헨트 코파 아메리카 8강 진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의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가 스위스에 승부차기 끝에 덜미를 잡혀 8강행이 좌절됐다. 프랑스는 29일(한국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아레나 나치오날라에서 열린 유로 2020 16강전에서 스위스와 연장까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5로 패했다. 마지막 키커로 나선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의 실축이 나오면서 유로 2016 준우승팀이자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인 프랑스는 허탈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프랑스가 유로와 월드컵 등 메이저 대회에서 8강에 오르지 못한 건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1년 만이다. 반면 스위스는 메이저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프랑스를 꺾고 195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올랐다. 스위스는 전반 1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프랑스를 흔들었다. 슈테벤 추버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하리스 세페로비치가 헤딩 슈트로 마무리했다. 0-1로 끌려간 프랑스는 후반 들어 분위기를 뒤집

는 듯했다. 후반 10분 스위스가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의 슈트를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막아 큰 위기를 넘긴 프랑스는 2분 뒤 동점골을 터트렸다. 음바페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찢러준 패스를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한 카림 벤제마가 왼발 슈트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벤제마는 2분 만에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슈트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자 이를 머리로 재차 밀어 넣어 프랑스의 역전을 이끌었다. 프랑스는 후반 30분 폴 포그바의 중거리 오른발 감아차기 슈트까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3-

1로 달아났다. 하지만 스위스가 반격에 나섰다. 스위스는 후반 36분 세페로비치가 다시 한번 머리로 득점포를 가동해 한 골 차로 격차를 좁혔고, 후반 45분에는 마리오 가브라노비치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진 연장전에서도 균형을 깨지 못하면서 양 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마지막 순간 스위스가 환호했다. 스위스의 키커 5명이 모두 성공하면서 4-5가 된 프랑스는 마지막 키커인 음바페의 슈트 상대 골키퍼의 손에 막혀 무릎을 꿇었다.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무득점(2도움)으로 침묵한

음바페는 결정적인 순간 승부차기에서도 실축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프랑스를 제압한 스위스는 8강에서 스페인과 만난다. 스페인은 이날 연장 끝에 크로아티아를 5-3으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다. 한편,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과 함께 멀티골을 폭발하며 아르헨티나의 2021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조 1위 8강 진출에 앞장섰다. 아르헨티나는 29일(한국시간) 브라질 쿠파아바의 판타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 4차전에서 2골 1도움을 올린 메시 덕에 볼리비아에 4-1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 KIA 브룩스, 7월 1일 NC전 선발 등판

멧텐 1군 복귀 시점은 유동적  
늦어도 17일에는 등판할 듯



브룩스와 멧텐의 D-데이가 확정됐다.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브룩스가 예정대로 7월 1일 마운드로 돌아온다. 멧텐은 7월 17일 출격

이 확정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29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 전에 열린 진행된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브룩스와 멧텐의 복귀 소식을 알렸다. 윌리엄스 감독은 "브룩스의 불펜 피칭이 괜찮았다. 목요일 선발로 예정하고 있다. 아직은 짧게 경기를 소화하겠지만 선발 등판이 준비됐다"고 브룩스의 7월 1일 NC전 선발 등판을 예고했다. 브룩스는 지난 27일에 이어 29일에도 불펜피칭을 소화하면서 마지막으로 몸상태를 점검했다. 멧텐의 1군 마운드 등판 시점은 유동적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불펜 피칭에서 괜찮았다. 세 번 정도 불펜 피칭을 할 예정이고 11일 게임에서 던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2군 경기가 될지 1군 경기가 될지는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정과 상관없이 17일에는 1군에서 던지는 스케줄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멧텐의 몸상태와 컨디션 등에 따라서 11일에 1군 등판을 소화할 수도 있고, 일정이 17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두 외국인 선수의 복귀 스케줄이 잡히면서 KIA는 내달 20일 시작되는 올스타 브레이크에 앞서 반전의 7월을 노리게 된다. 멧텐과 브룩스는 오른쪽 굴곡근(팔꿈치) 통증으로 각각 지난 5월 26일과 6월 4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외국인 원투 펀치'가 빠진 뒤 임기영이 켈리



스타트를 이어가며 에이스 역할을 해왔고, 막내 이의리도 5회 이상을 소화하면서 선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민우와 함께 '대체 선발'들의 활약이 부족했다. 이민우(4경기), 김유신(3경기), 차명진(3경기), 윤중현(2경기), 최용준(1경기)이 13경기에서 나와 47.1이닝을 소화해주는 데 그쳤다. 5이닝을 소화한 경우는 13일 롯데와의 더블헤더 2차전 이민우, 18일 LG전 김유신 등 두 번에 그쳤다. 선발이 일찍 물러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왔던 KIA는 브룩스의 가세로 마운드 운영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25일 부상에서 돌아온 유격수 박찬호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줬다. 윌리엄스 감독은 "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처음 두 경기 때는 섬섬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도루를 못 하게 해서 섬섬했던 것 같다"고 웃음을 보였다. 지난 13일 롯데 원정경기에서 수비 도중 어깨 부상을 당했던 박찬호는 25일 엔트리에 재합류, 키움과의 주말 3연전에서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세 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등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리그2, 3개 팀 나란히 '승점 30' ... 전남, 득점에 밀려 3위

### 1위 FC안양·2위 김천상무

'득점'에서 K리그2 1위 싸움의 명암이 갈렸다. 지난 28일 K리그2에서는 흥미로운 '만데이 나잇 풋볼' 경기가 펼쳐졌다. 1위 FC안양과 2위 전남드래곤즈가 안양종합운동장에서 만났고, 같은 시간 이 두 팀을 승점 2점 차로 쫓고 있던 4위 김천상무가 충남아산FC를 상대로 홈에서 18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안양과 전남은 이 경기 전까지 나란히 8승 5무 4패(승점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득점에서 안양(23점)이 전남(19점)에 앞서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느 팀이 1위로 시즌 반환점을 도느냐에 관심이 쏠렸던 승부에서 안양이 그대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전남은 18경기 연속 원정무패 기록은 있었지만 3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이날 전남과 안양은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두 팀의 승점은 30점이 됐다. 그리고 이날 김천상무도 '승점 30' 고지에 합류했다. 김천상무는 멀티골을 터트린 허용준을 앞세워 3-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더해 안양, 전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리고 이날 3골을 더한 김천상무는 22득점이 되면서, 전남을 다득점에서 따돌리고 2위로 올라섰다. 멀티골로 팀을 2위로 올려놓은 허용준은 18라운드 MVP에도 선정됐다. 득점에서 갈린 1위 싸움은 앞으로도 흥미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올 시즌 24골로 득점 2위에 오른 대전하나시티즌이 승점 28로 선두를 추격하고 있다. 또 올 시즌 '득점 1위' 안병준(13골)을 앞세워 가장 많은 27골을 만든 부산아이파크도 승점 4점 차로 5위 자리에서 선두권을 지켜보고 있다.



전남 김명욱이 지난 28일 안양과의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부산은 아직 1경기를 덜 치른 만큼 경기수에서도 유리하다. K리그2의 1위 전투가 화려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오늘 '문화가 있는 날' 챔피언스필드에서 밴드 연주·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행사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챔피언스필드에서 밴드 연주, 스트리트 댄스, 크로스오버 앙상블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문화가 있는 날'인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전에서 광주지역 재즈팝 밴드 앙리머스와 힙합 댄스팀 H2CH의 공연을 선보인다. 앙리머스의 연주에 맞춰 H2CH가 프리스타일 스트리트 댄스를 펼칠 예정이다. 7월 3일 두산전에서는 해치스카웃이 '도약(DOYAK)'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한다. 크로스오버 앙상블 쇼인어스는 '꽃보다 아름다워', 'ilmondo' 등 크로스오버 가요와 클래식공연

에 나선다. 이날 시구는 광주문화재단 황봉년 대표이사가 맡는다. '문화가 있는 날'이 포함된 NC와의 주중 3연전(6월 29일~7월 1일) 입장권 할인 판매(일반석 30%)도 이뤄진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 29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의 무료 관람과 프로 스포츠 입장권 할인 등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